

자존을 지키는 어떤 벽

양희석 사진작가



2022년 5월 9일 저녁,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.

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. 그 시간 그 바로 옆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(혹은 기도회)가 열렸다.

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에서는 온갖 혐오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고 그 말들은 스피커를 통해 확대되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전해졌다.

두 집회 사이에는 3개의 벽이 막고 있었다. 그중 2개는 두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과 경찰의 벽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이 세운 현수막.

두 집회 사이를 막고 있는 영성한 벽들은 '혐오의 말'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. 그러나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세 번째 벽을 치우지 않았다.

세 번째 벽은 혐오의 언어에서 자신들을 자존을 지켜주는 벽이 아니었을까?

세 번째 벽에는 '성소수자가 요구한다'라고 적혀 있었다.

차단막과 경찰이 두 집회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벽이 되었다. 어느 순간 차별금지법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현수막을 펴 차단막 위에 펼쳤다.